

옛 영산포역, 철도공원 이어 '문화체험관' 들어선다

나주시,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 내년 착공...총 사업비 29억원 투입 1969년 신축 당시 모습 그대로... 문화·체험·전시 복합 건축물 조성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호남 지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영화를 누렸던 옛 영산포역이 문화·체험·전시 공간을 갖춘 복합센터로 새 단장한다.
나주시는 호남선 복선화 공사로 폐역(廢線)이 된 영강동 소재 옛 영산포역사(부지 741㎡)를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체험관은 연면적 978.75㎡, 3층

규모로 총 사업비 29억원(도·시비 각 50%)을 투입해 올해 실시계획을 거쳐 내년 1월 착공할 예정이다.
1969년 신축 당시 모습의 영산포역 복원을 골자로 역사·기차 체험관, 종합전시관, 행사관, 문화센터, 전망시설 등이 들어선다.
체험관은 옛 영산포역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공간이자 조성된 철도공원, 인근 관광자원과

더불어 영산포역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산포역은 1913년 보통역으로 영업 개시 후 한국전쟁 중 소실됐다가 1969년 신축돼 호남지역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명성을 날렸다.
2001년 7월 호남선 복선 전철화 공사 완료에 따른 선로 이설로 나주역과 통합돼 폐역으로 남겨졌다가 이후 2004년과 2019년 2차례에

걸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의 영산포 철도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 분야 균특사업 선정에 힘입어 사업비 16억원(균특10억, 시비6억)을 투입해 공원 내 관광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폐철길을 활용한 600m 구간 레일마이크(3개)와 상징게이트, 야외공연장, 포토존, 초화원 등이 조성돼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레일마이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하에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17시까지 운영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새 단장을



마친 철도공원과 함께 내년 착공을 앞둔 영산포역사 문화체험관이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활동 지원과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 21일 하루 '밤나무해충 항공 방제'

백아·사평면 일대 87.2ha...약제 살포 경계 표시 등 당부

화순군이 21일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밤나무해충 항공 방제에 나선다.
화순군은 이날 오전 5시부터 12시 사이에 산림청 헬기(BELL 713 소형) 1대를 지원받아 항공 방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밤 수확량 증대를 위해 밤나무 재배 농가 중 지상방제를 할 수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항공 방제를 지원한다.
약제가 충분히 살포되도록 밤나무 무로부터 15~20m 상공에서 살포하고 방제지역은 백아면, 사평면 일대에 65필지로 면적은 87.2ha이다.
밤나무해충은 주로 종실에 피해를 주는 복숭아명나방, 밤 바구미 등으로 유충이 밤송이나 과육을 파먹어 품질 저하된다.
항공 방제 약제는 유기농업 자

재로 공시된 제품을 사용하고 품질 생산은 물론 인근 친환경 재배 지에도 영향이 없도록 친환경 약제를 사용할 예정이다.
군은 항공 방제 대상 농가에 "방제 대상 구역에 백색 깃발을 설치하고 주변 양봉·타 작물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위험 지역 경계 부근에 적색 깃발을 세워 달라"고 각별하게 당부했다.
군은 항공 방제 대상 농가가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산림청 헬기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양봉 농가에 해충 항공 방제 살포 지역 밖으로 벌통 이동하거나 방봉을 금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살포 지역 민가에 장독대와 우물 덮기, 방제 구역 내 입산 금지 등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마을 홍보 방송을 할 계획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담양군, 폭염대비 산림사업장 특별 점검

평년보다 높은 기온 대비 일사병 등 안전사고 예방

담양군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산림사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산림사업장이 여름철 강한 직사광선으로 일사병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관내 조림사업지와 산림연접지, 가로수 등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항목은 폭염 대비 직사광선 노출 최소화를 위한 새벽

시간 작업, 의무적인 휴식 등 탄력적인 작업시간 운영과 야외텐트, 천막 등 근로자의 휴식공간, 코로나19 대비 식사, 휴식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와 작업자 발열체크 및 개인위생 관리, 아이스팩, 응급약품 등의 응급조치용 물품 비치 등이다.
군은 6월까지 지역 사업장 참여

근로자 73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사업 종료까지 안전교육과 지도 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라며 "안전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곡성군, 아열대 만감류 선진지 현장 견학

곡성군은 고품질 만감류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만감류 선진농가 벤치마킹 현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는 만감류 조성사업 추진 농가와 농업 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나주시, 장흥군, 익산시에 위치한 레드향 및 한라봉 선진 농가를 방문해 품종 특성, 조기 재배 시설하우스 규

격 및 기자재 품목 등을 학습했다.
교육생 A씨는 "내륙에서는 생소한 만감류 작목 정보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곡성군 관계자는 "만감류가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장성군,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10월 말까지 3개월 연장

장성군이 당초 이달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농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철 인력 부족 및 적기 영농지원을 위해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왔다.
임대료 감면을 시행한 지난 4개월 간의 집계에 따르면 누적 이용 건수는 425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군은 농가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농

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성 지역 농업인이라면 지원기간 중 누구나 1주일 간 1일분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첫날 임대료만 감면되며, 다른 기종의 농기계를 임대하면 다시 첫날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농산물의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